

전기오토바이 생산 e-모빌리티공장 광주에 건립

광주시·베리워즈·광주TP 업무협약 35억 들여 양산라인 구축·인력채용 탄소중립에너지자립도시 조성 탄력

전기오토바이와 충전 설비 등을 생산하는 e-모빌리티 공장이 광주에 설립된다.

광주시는 24일 오후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주)베리워즈, 광주테크노파크와 '광주형 인공지능(AI)-그린뉴딜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탄소중립 e-모빌리티사업 추진 시 행정지원 및 환경조성 ▲e-모빌리티 생산공장 설립 ▲탄소중립 에너지자립에 관한 신규 사업 적극 발굴 및 참여 ▲탄소중립 및 온실가스 감축 등 상호 업무협력이 가능한 사항 등이다.

(주)베리워즈는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탄소중립 사업 모델 제공과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 컨설팅 등 탄소중립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컨설팅 기업이다.

특히 베리워즈는 이번에 자체 개발한 비즈니스 모델인 e-모빌리티 사업을 캄보디아에서 착수하면서 이에 따른 생산 공장을 광주에 설립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약 35억원을 투자해 부지매입 및 양산라인 구축 등 신규 공장을 광주에 설립하고, 인력을 고용해 본격 생산에 돌입할 계획이다.

오토바이, 3륜 차량 수요가 많은 동남아 시장을 겨냥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기반 배터리 충전 시스템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한다는 것이다.

베리워즈는 이 같은 e-모빌리티 사업 영역을 광주에서 전기 이륜차를 대어하는 서비스뿐 아니라 배달·렌탈 시장 등과 연계한 사업도 확장할 방침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온실가스 감축을 지향해 다양한 탄소중립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있는 (주)베리워즈와의 협약으로 광주시의 2045탄소중립 에너지 자립도시 'RE100' 광주 조성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주)베리워즈 김성우 대표는 "온실가스 저감을 기업의 영역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에 베리워즈는 생활공감형 탄소중립 사업모델 발굴 및 제공을 통해 광주가 2045년 에너지자립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용섭 시장은 "(주)베리워즈가 상생 동반자로 광주를 선택해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다"면서 "오늘 업무협약은 우리시가 AI그린뉴딜을



이용섭 광주시장이 24일 오후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김성우 (주)베리워즈 대표(사진 왼쪽), 박정환 광주테크노파크 지역산업육성실장과 광주형 AI-그린뉴딜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실현하는 데 있어 새로운 동력이 되고, (주)베리워즈 역시 글로벌 녹색 경쟁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광주시, 인공지능 인재 양성 허브 공간 구축 박차

광주영상복합문화관 호남권 4차산업 교육장 활용

광주시가 인공지능 핵심인재 양성 허브공간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조인철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은 24일 광주영상복합문화관 내에 호남권 4차산업 핵심인재 양성의 허브공간으로 사용될 교육장 구축 현장을 점검했다.

조 부시장은 이날 ICT이노베이션스퀘어 확산사업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신규 교육장 구축 공

간 등을 둘러봤다.

광주시는 2020년 8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지역 ICT이노베이션스퀘어 확산 사업에 선정됐으며, 광주영상복합문화관을 호남권 4차산업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허브(HUB) 공간으로 구축하고 있다.

2023년까지 국비 60억원을 투입해 단계별로 조성한다.

지난해에는 교육 및 협업 창작공간(4층), ICT 콤플렉스 개발실 및 회의실(5층)을 마련했으며, 올해는 교육장(2·3층)을 추가 구축한다. 모든 공간은 창작과 개방성을 염두한 가변형으로 조성된다.

광주영상복합문화관은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 기술의 주도층인 젊은 세대의 접근성이 좋은 광주 도심에 있다는 점에서, 인적자원 활용과 네트워크 교류가 용이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광주시는 광주영상복합문화관 내에 멤버십을 기반한 개발자 중심 커뮤니티 모임과 기술 교류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네트워크 활성화할 계획이다.

특히 4차산업 관련 최적의 교육 인프라를 구축해 대한민국 인공지능 산업에 필요한 인공지능(AI)·블록체인(BC) 인재를 2023년까지 1200명 양성한다.

조 부시장은 "광주영상복합문화관이 ICT이노베이션스퀘어 콤플렉스로써 광주와 호남을 넘어 대한민국의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SW) 인재양성의 허브(HUB)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교통미래비전 수립 의견 수렴 광주시 25일~6월13일까지

광주시는 "광주교통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할 '2040 광주교통 비전' 수립에 시민의견을 적극 수렴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광주시는 광주형 3대뉴딜을 교통 분야에서 구체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선진교통체계의 전폭적인 선도 모델을 창출하기 위해 올해부터 그린뉴딜-대중교통 중심의 '2040 광주교통 비전'을 수립한다.

정책제안은 광주시에 거주하는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빠르고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 환경 조성 ▲녹색교통 이용 활성화 ▲사람이 우선 되는 안전한 교통환경 구축 ▲기타 광주 미래교통 관련 창의적인 아이디어 등 총 4개 분야에 응모 가능하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25일부터 6월13일까지 시 온라인 소통 플랫폼 '바로소통광주'에 접속해 자유롭게 제안하면 된다. 제안은 관계공무원 및 전문기사가 심사 절차를 거쳐 우수제안과제를 선정해 시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박남운 광주시 교통건설국장은 "이번 시민의견 수렴은 형식적인 의견수렴 과정이 아닌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광주의 교통정책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며 "제안된 내용 중 타당한 사업은 시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상생카드 8월부터 사용 전 꼭 충전하세요"

사전 충전 방식 변경

지역 화폐인 광주 상생카드가 오는 8월부터 사전 충전 방식으로 변경된다.

24일 광주시에 따르면 기존에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연결 계좌에서 결제 후 10%를 환급(캐시백)받는 방식이었지만 앞으로는 월 50만원 한도로 먼저 충전한 뒤 사용해야 한다. 사용자가 최대 50만원을 충전하면 계좌에서 45만원만 결제되는 선할인 방식으로, 충전은 광주은행 영업점 방문이나 인터넷·스마트뱅킹으로 할 수 있다.

지난해 7월 시행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은 사용 전 구매(충전) 행위가 필수적으로 이뤄지도록 규정한 데 따른 조치다.

상생카드는 법률이 생기기 전인 2019년 3월 출시 때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못했으며, 행정안전부로부터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 국제, 지방세, 대학 등록금, 4대 보험료 등 일부 결제도 할 수 없게 된다. 영업점 방문과 인터넷뱅킹 충전은 8월 1일부터, 스마트뱅킹 서비스는 8월 16일부터 가능하다.

광주시는 코로나19 등으로 침체한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상생카드 10% 특별할인(기준 5%) 기간을 오는 12월까지도 연장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민물장어' 가격 얼마나 떨어졌길래

지난해 1kg당 4만원서 1만9000원 '반토막' 전남도의회 가격안정대책 촉구 건의안 의결

전남도의회가 민물장어 가격 안정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의결했다.

24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신의준 의원(더불어민주당·완도2)이 발의한 '민물장어 가격안정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이 지난 21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신 의원은 건의안에서 코로나19 종료 시까지 수산정책자금 금리 1%를 전액 지원하고 민물장어 유통체계 개선 등 민물장어 가격안정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도록 촉구했다.

도의회에 따르면 민물장어는 지난 2018년 수산물 유통법 개정을 통해 위판 의무화가 시행하고 있지만, 수협별 경매사와 중간상인에 의한 현장경매로 진행되고 있어 시기에 따라 산지 가격

이 kg당 2배 이상의 차이를 보인다.

지난해 6월 1kg당 3마리 기준으로 4만원 선이었던 산지가격은 최근 50% 이상 하락한 1만 90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이처럼 가격이 급락한 것은 불규칙한 천연 종자 생산으로 계획적인 양식이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코로나19에 따른 소비감소 영향이 가장 크다

고 신 의원은 설명했다.

신의준 의원은 "민물장어 위판 의무화가 취지에 맞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수협 유통체계 일원화와 소매가격 안정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며 "수급조절을 통해 양식 어업인의 소득을 보장하고, 안전성 검사를 통해 신선한 장어를 국민들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

장했다.

이어 "민물장어 종자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인공종자 생산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며, "중자 수급관리체계의 제도적 장치 마련과 인공종자생산 융복합 연구기관 조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어업과 민물장어 양식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기틀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의안에는 39명의 도의원이 발의에 동참했다. 의결된 결의안은 대통령(비서실장), 국회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각 정당 대표, 해양수산부장관에 송부된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함께하는 100년 농협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국민은행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국민은행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서비스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꼭 바로 바로 확인까지 꼭!

NH가성비국민건강보험 2004 (무배당)

가성비를 갖춘 합리적 선택!

심장질환 + 뇌질환 2대 혈관질환! 든든하게 준비하기! 진단비와 수술비를 동시에!

올바른 POINT UP 카드

국내·외 전 가맹점에서 무제한 포인트 적립! 전 가맹점 최대%적립 + 생활밀착형 가맹점 추가 적립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국제공항 라운지 무료이용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안한 환전·해외송금을 맡히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 362-8400~6 FAX. (062) 362-8407

운암백산지점 062)529-5335~6	쌍촌지점 062)381-6551~2	유동지점 062)512-1984~5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동운지점 062)528-2640~2
상무동지점 062)372-3741~2	빛고을로지점 062)531-1213~5	농성지점 062)361-4472~4	운암지점 062)527-3295~6	비틀지점 062)381-1971~2
용산지점 062)526-0222~3	화정지점 062)372-0421~3	동림지점 062)513-8521~3	유덕지점 062)373-3235~6	운천지점 062)371-2772~3
지평지점 062)381-8212~3	로컬푸드직매장 062)364-8400	유덕하나로마트 062)373-3235	하나로마트동림점 062)511-2901~3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